

요망진 제주사람 (3) 김봉건 연극 연출가

연극계가 주목하는 젊은이, 4·3을 무대에

“우연히 하게 된 연기로 시작된 ‘연극 인생’ 뮤지컬 ‘천상시계’로 연출 데뷔 30대 초반에 ‘여도’ 등 대표작 여럿 4·3 알리기 위한 작품도 이어가 응원해주는 가족·동료 큰 힘”



최근 제주4·3을 소재로 한 연극 ‘잃어버린 마을’을 무대에 올린 제주 출신 김봉건 연극 연출가(32·사진). 30대의 젊은 나이에 연극계에서 활약하며 주목받고 있는 제주인이다.

그가 직접 극본을 쓰고 연출뿐만 아니라 제작에도 참여한 이 작품은 관객들로부터 호평을 받으며 성공적으로 막을 내렸다. 지난해 국내 최정상급 작품들이 선보이는 예술의 전당에서 명품 추리 사극 ‘여도’를 선보이며 완성된 연출력을 인정받았고, 이번 연극으로 연출가로서 대중에게 더 다가섰다. 그는 제주시 도남동 출신으로 세종대 영화예술학과를 졸업, 고려대학교에서 문예창작학과 석사, 단국대학교에서 문화예술학 박사 과정을 거쳐 현재 고려대에서 문예창작학

박사 과정을 밟고 있다. 고등학교 재학 중 우연히 연기자로 캐스팅되면서 연극 인생에 발을 디뎠다.

“제주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했고, 남녕고등학교를 다니다 인하대학교 부속고등학교로 전학을 갔습니다. 학교에 다니던 중 연기자로 캐스팅됐는데, 전문적으로 연기를 배우고 싶어서 국립전통예술학교(전 서울국악예고)에 진학했습니다. 연극·뮤지컬이 전공인 음악연극과에서 공부했고 담임선생님의 추천으로 연극 연출가로 활동하게 됐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30대 초반에 벌써 여러 작품을 선보인 그의 이력에 놀란다. 2008년 울산문화재단 초청 작품으로 무대에 올린 뮤지컬 ‘천상시계’의 연출로 데뷔했을 때는 21세에 불과했다. 뮤지컬 ‘사운드리스’(2010), 연극 ‘거울 뒤 여자’(2012), ‘순이삼촌’(2013), ‘여도’(2018) 등이 그가 연출한 대표작이다.

제주출신으로서 4·3을 알리야 한다는 소명 의식 속에 4·3을 소재로 한 작품을 이어가고 있는 점도 눈길을 끈다. 그는 연극을 본 관객들이 4·3사건에 대해 알게 되었고 잊지 않겠다고 얘기해줄 때 가장 보람을 느낀다고 밝혔다.

“대학원 석사 논문을 ‘장일홍의 제주4·3사건 희곡 연구’를 쓰다보니 더욱 4·3 사건에 관심이 높아졌습니다. 제 역량이 부족해 앞으로 또 세

로운 작품을 다루게 될지는 모르겠습니다. 다만, 문화예술계 종사자로서 바람이 있다면 천만 4·3영화가 나오길 기대합니다.”

최근 작품 ‘잃어버린 마을’은 당초 지난해 4·3 70주년에 맞춰 연극 ‘순이삼촌’ 앵글 공연을 고민하다가 희극적인 요소가 강한 4·3사건 소재 연극을 만들면 좋겠다고 생각해 기획했다. “4·3사건을 다루면서도 재미있는 연극을 만들고 싶었습니다. 재미있는 장면들이 진행되다가 갑작스럽게 4·3사건이 다가올 때, 더욱 크고 충격적이게 다가올 것이라는 확신이 들었지요.”

연극연출가의 삶은 어느 예술가처럼 녹록지만은 않다. 그는 현재 IT관련 작은 회사도 공동 운영하면서 연출을 하고 있다. 힘들 때마다 응원해주는 가족과 동료들은 연출가의 길을 걷게 하는 가장 큰 힘이다. 그는 이번 연극으로 독립영화를 준비하고 있고 가까운 시일에 촬영에 들어갈 예정이다. 내년에는 ‘잃어버린 마을’ 앵글공연도 기획 중이다.

“운이 좋게 어린 나이에 연출을 시작하게 됐는데 아직 자리매김하지 못해 노력 중입니다. 제주에서 수많은 선배 연극인들이 작품을 올리시는데, 서울에서 후배가 열심히 활동하고 있구나라는 점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작품 활동도 꾸준히 하겠습니다.” 서울=부미현기자

靑 정책실장 김상조·경제수석 이호승

문재인 대통령이 대통령비서실 정책실장에 김상조 공정거래위원회 위원장, 대통령비서실 경제수석에 이호승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각각 임명했다.



김상조 이호승

김 신임 정책실장은 현 정부 초대 공정거래위원장으로 경제 분야 핵심 국정기조인 공정경제 구현에 앞장서 왔다. 한성대 무역학과 교수, 참여연대 경제개혁센터 소장, 한국금융학회 부회장, 공정거래위원장 등 학계·시민단체·정부 등에서의 활발한 활동을 통해 경제 분야뿐 아니라 사회·복지·교육 등 다방면의 정책에도 정

통한 전문가로 평가받는다. 이 신임 경제수석은 행정 32회로 공직에 입문, 국제통화기금 선임자문관, 기획재정부 경제정책국장, 대통령비서실 일자리기획비서관, 기획재정부 제1차관을 역임했다. 청와대=부미현기자

4·3특별법 개정안 논의 재개될까

이번주 국회 행안위 가동 자유한국당 복귀는 미정

6월 국회가 지난 20일 소집된 가운데 자유한국당을 제외한 여야 4당이 이번주 국회 상임위원회를 본격 가동하기로 했다. 하지만 자유한국당이 선별적으로 상임위에 참여하기로 해 법안 논의가 원활히 이뤄질 지는 지켜봐야 할 것으로 보인다.

더불어민주당은 24일부터 바른미래당, 민주평화당, 정의당 등 야 3당과 공조해 각 상임위 전체회의를 동시다발로 열 예정이다. 국회법 52조가 따라 제적 위원 4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상임위를 열 수 있다.

제주4·3 희생자 배보상을 골자로 한 제주4·3 특별법 개정안 등이 계류돼 있는 행정안전위원회도 이번 주 법안심사소위원회와 전체회의가 예정돼 있다. 행안위 법안소위는 25일 회

의를 열 예정인데, 안건은 확정되지 않았다. 제주4·3 특별법 개정안은 법안 소위에서 논의가 보류된 상태다.

26일과 27일 두 차례 소집되는 행안위 전체회의에서는 현재 제주 관련 법안의 경우 자유한국당 김도읍 의원이 발의한 제주특별법 개정안이 논의될 전망이다. 개정안은 지역여건을 감안해 불가피한 경우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해 해제할 필요가 있는 개발제한구역에서 개발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하고, 해당 개발사업의 시행을 승인·고시한 때에 개발제한구역의 해제 결정이 있는 것으로 보도록 특례를 신설한 것이 주요 내용이다.

한편 나경원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23일 성명서를 통해 “국회법 개정안·김현준 국제청장 후보자 인사청문회와 북한 선박 등 주요 현안이 있는 국회 상임위를 선별적으로 열어 해당 이슈를 점검하겠다”고 밝혔다. 국회=부미현기자

정의당도당위원장 선거 고병수-김대원 '2파전'

정의당 제주도당 위원장 선거는 2파전으로 치러지게 됐다.

23일 정의당 제주도당에 따르면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간 제5기 당직선거 후보등록을 마감한 결과 정의당 도당 위원장 후보에 김대원 제주도당 위원장과 고병수 제주시각 위원장이 출마했다.

김대원 후보는 현재 정의당 제주도당위원장과 제주도 안경사회 회장을 맡고 있다. 김 후보는 “당원들이 즐거운 정의당, 시민에게 따뜻한 정



고병수 김대원

의당’의 슬로건을 내걸고 지지를 호소하고 있다.

고병수 후보는 정의당 제주시각위원장과 탐동365일의원 원장으로 활동하고 있으며, ‘소수 정당을 넘어 유력정당으로!’라는 슬로건으로 내걸고 도당위원장에 도전하고 있다.

조선윤기자 sycho@ihalla.com

제주시 아라~회천-번영로 연결도로 8월말 개통 예정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달 중단됐던 아라~회천과 번영로 연결교량(봉개교) 상부빔 거처를 지난 19일부터 20일까지 이틀에 걸쳐 완료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도는 앞으로 낙하물방지망 설치, 거꾸집 공사, 교량상부 콘크리트 타설 등 후속공종 추진에 박차를 가해 오는 8월말 아라(첨단과학기술단지)~번영로간 개통에 최선을 다한다는 계획이다.

한편 작업기간 동안 중간간도로 분기점인 봉개교 차로에서 페피로스 입구까지는 우회도로를 이용하는 것으로 전면 통제가 이뤄졌다. 오은지기자

자격 못 갖춘 주택건설업체 ‘수두룩’

도, 기술인력 미보유 등 법 위반 51곳 행정처분

제주특별자치도는 주택법을 위반한 주택건설사업자와 대지조성사업자 등에 대한 행정처분을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현행법은 연간 20세대 이상의 단독주택이나 공동주택(도시형 생활주택 30세대)을 공급하거나 1만㎡ 이상 대지를 조성하기 위해서는 주택건설사업자 등으로 등록하도록 하고 있다.

등록사업자는 매년 1월 10일까지

전년도 영업실적과 해당 연도 영업계획 및 기술인력 보유현황을 제출토록 규정하고 있다. 또 자본금 3억원(개인인 경우 자산평가액 6억원)과 해당 기술인력 1명 및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사무장비를 갖추 수 있는 사무실을 두도록 하고 있다.

제주자치도는 2018년 12월말 기준 도내 등록된 397개 사업자 중 전년도 영업실적과 해당 연도 영업계획 미제출 업체, 등록기준 중 기술인력을 보유하지 않은 77개 업체를 대상으로 지난 4월 행정처분에 따른 사전 의견제출 기회를 부여했다. 이후 보완 여부 확인을 통해 보완을 완료

한 15개 업체와 자진반납한 11개 업체를 제외한 51개 업체를 대상으로 행정처분을 단행했다.

제주도는 행정처분 대상 51개 업체 중 영업실적 등을 미제출한 24개 업체에는 ‘경고’ 조치하고, 전년도에 같은 사항으로 행정처분을 받은 4개 업체에 대해서는 ‘영업정지 15일’을 처분했다.

이와 함께 등록기준인 기술인력 미달 업체 중 보완을 완료한 4개 업체에는 ‘영업정지 1개월’, 미보완 19개 업체에는 ‘영업정지 2개월’을 처분했다.

조선윤기자 sycho@ihalla.com

친환경 전통건축 [한옥에서의 건강한 삶], 전통건축 선자연이 실현합니다.

시공

- 전통건축(살림집, 사찰)
- 전원주택 시공 및 리모델링
- 전통 구들 시공
- 문화재청 등록 [문화재수리기술자] 직접 시공
- 전통건축 대목이 직접 시공참여 기술지도
- 나무, 흙, 돌 등 천연재료를 사용한 친환경 건축
- 제주 전통건축 양식 및 기후 반영한 설계 시공
- 품질 우선 시공, 합리적인 건축비

상담 : 010-5308-5796, 064-764-0488

전통한옥문화재사랑 선자연

제주도 “토종” 태양광 기업

태양광

“누가”시공 하세요?

발전사업

- 초기자본 0
- 토지소유자 무자본발전소 운영!
- 유지/보수/관리 전문
- 친환경 스크류 공법

가정용 태양광

- 제주에너지공사 선정 기업
- 가정용 태양광전문 설치 기업
- 고장난 태양광 수리(A/S)

200여개 사업 실적 보유
제주 최대 태양광 발전사업기업

(주)나눔에너지
064-745-0420 / 010-6765-8853
www.nanoomenergy.com

리모델링의 선두주자

濟州 리모델링

辛(신) 一(일) 祚(조)

누수탐지·방수

신축/중축/리모델링/화장실 리모델링
아파트/단독주택 전체 리모델링/지붕개량/
옥상방수/페인트공사/창문/도어문/대문 교체
불박이장/싱크대/신발장/도배/장판
몰딩 시공

책임시공, A/S견적무료

정성을 다하는 직접시공. 혼을 담은 책임시공

주소 | 제주시 진동로5길 9, 유진빌라 201호

친절문의 064.742.6234
문의 010.7599.6234

WIDEX HIGH DEFINITION HEARING

제주센터

와이덱스 보청기

국민건강보험, 청각장애인 보장구 지원금 확대 실시
최대 131만원 까지 지원

소리왜곡이 적은 자연스럽고 편안한 음질

보청기만을 연구·개발하는 덴마크 와이덱스 제품

왜! 와이덱스 보청기 일까요?

일관된 청각서비스 제공으로 고객만족도 향상

믿을 수 있는 철저한 사후관리

이 제품은 “의료기기”이며 “사용상의 주의사항”과 “사용방법”을 꼭 읽고 사용하십시오.
판매처 : 와이덱스 보청기 제주센터

상담예약 064) 755.1005

제주시청 3층 CGV 광양사거리

제주시 동광로 4, 삼육빌딩 3층 (제주시청 광양사거리)